

研究論文

舊韓末 美 改新敎 선교사들의 對韓 인식

- 1884년부터 1919년까지를 중심으로 - *

이 상 훈**

I. 序: 선교사들의 對韓 인식 왜	IV. 한국 진출 선교사들의 대한(對韓) 인식
II. 미선교부와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 진출	V. 結
III. 한국 진출 선교사들의 문명관	

I. 序: 선교사들의 對韓 인식, 왜?

한국의 기독교단은 1982년에 한국기독교(개신교)史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 100년 연구총서’를 기획한 바 있다. 여기에서 유동식을 비롯한 집필진들은 한국의 근세 100년사를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하면서 구한말시대, 일제의 식민시대 그리고 해방 후의 한국시대로 나누어 각 시대별로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그들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대한기독교서회의 의뢰에 의해 한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韓國神學思想史’가 집필된 바 있고, 이 속에서 역시 선교초기의 개신교 선교사의 사상과 또한 그들에게서 영향 받은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문명의식을 다루고 있다. 이들 집필에서 독자들은 “한국 민족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고 또한 한국 근대민족사와 유리된 한국 기독교사를 저술할 수 없음”을 토로하는 필자들의 기본 입장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한국교회사 서술 양식에

* 본고는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학 기초연구 지원과제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연구’의 일환으로 집필되었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역사신학 전공.

있어서 과거 선교사 중심의 기존 사관으로부터 한국 민족 중심의 사관을 천명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왔던 과거의 서술양식으로부터 소위 ‘주체적 역사인식’의 입장에서 교회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의 일단이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상기의 피상적인 구호를 넘어서 좀더 미시적으로 한국개신교의 초기 역사를 조망해 볼 때 개신교 초기의 역사는 전반적인 한국 근대민족사와 연관되어 규명되어야 할 필요에 눈뜨게 된다. 소위 ‘개항기 이후 한국의 급변하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위상을 분석하지 않고는 소위 ‘한국 민족 속의 주체적인 기독교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과제는 다분히 미흡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과거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宣教師라는 존재 자체를 한국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한국과 여타 외국과의 접촉 관계, 즉 外交史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그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宗教史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외국인보다는 한국인과 관련된 자료들, 신앙의식이나 종교적 실천에 관한 자료보다는 대사회적 활동이나 개별 인물들의 사상에 관한 자료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自國人和 내적 동기를 제외한 외적 성취로 만족하는 글쓰기 시도들은 한국의 역사, 특히 근대사에서 선교사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가늠하는 총체적 그림을 구비하는 일에는 미흡함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¹⁾

이제, 이 같은 입장에서 향후 본 연구의 방향은 한국에 파송되어 일정한 형식의 선교를 경험했던 이들의 총체적 역사의식을 규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말 미선교부의 성격과 조선에 진출한 소속 선교사들의 성향 및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미국의 사회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맥락에서 미선교부가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1) “기독교사는 그 본질에서 宣敎史이다. 또한 반드시 宣敎史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기독교 사상의 한 중간적인 존재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게 되어 있다(고전 11:26). 이 중간적 존재인 교회의 철두철미한 사명은 복음선포이다. 기독교사는 宣敎史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개신교사도 宣敎史가 되어야 한다”고 백낙준은 술회한다 白樂俊, 『韓國改新敎史』(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2~3 쪽

출신 배경과 신앙의식은 어떠하였는지가 규명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교사들이 미국 본국에서 어떤 종교적 배경에서 성장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과 신학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본국과는 다른 선교지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의식의 변화를 겪었고, 또 이것이 그들의 활동 속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규명될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제는 한국에 진출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에 대한 관념이다. 한국에 진출한 선교사들의 문명관은 당대 서구의 문명화에 대하여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즉 문명을 진보로 파악하고 이를 긍정하는 태도와, 문명을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는 양가적 감정이 그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진출한 선교사들이 선교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미선교부와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 진출

1. 19세기 미국의 종교적 상황과 정교관계

19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자신의 역사에 있어서 최대의 지리적 확장을 경험한다. 텍사스 공화국은 1836년에 멕시코로부터 독립하였고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까지 팽대하던 지역이 오레곤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서부의 팽창에 고무된 미국 인들은 금광의 발견을 목적으로 급격한 서부 이주의 열정에 휩싸인다. 아울러 새로 개척되는 영토에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였던 바, 노예제도는 여전히 용인되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뉴햄프셔 등의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제 산업에 종사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주로 토지를 기반으로 경제를 영위하는 남서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제기한다. 이를 통해 노예제도 존속파와 이에 맞서는 급진적 민주주의 세력들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를 계기로 敎界도 노예폐지론을 앞세우는 진보파와, 전통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노예제도를 긍정하는 보수파로 나뉘어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여 주었다. 한편, 1861년 남부 연방의 교회가 링컨 대통령이 보강하기 시작한 찰스톤

항구에 있는 북부 공화국 숨터 요새지의 공격을 계기로 북부의 여론이 급격하게 냉담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기독교회의 분열도 촉발되었던 바, 장로교의 경우 남, 북 장로교회의 분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와중에도 교회는 꾸준히 교세를 확장하였고, 그 결과는 자국내의 교세확장만이 아닌 해외의 선교에의 열정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²⁾

교회사가 라토렛(Latourette)은 19세기를 일컬어 ‘(기독교의 확장에 있어서)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고 명하고 있다. 이 같은 명칭에 대한 근거로서 1) 그 이전의 어떤 시기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며, 2) 광대한 지역으로 나가 (기독교) 복음 전파에 진력한 시기였고, 3)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 막중한 대가를 지불한 시대였으며, 4) 많은 결출한 선교사가 배출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실제로 19세기 중에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데이빗 리빙스턴, 헨리 스텐리, 알렉산더 맥케이 등이 있고, 인도지역에는 윌리엄 케리, 아도니람 저드슨, 헨리 마틴, 알렉산더 더프 등이 있으며, 극동지역에는 로버트 모리슨, 칼 구츨라프, 허드슨 테일러, 조나단 고포드 등의 이름을 거명할 수 있다.

이들 선교사들의 사상적 연원은 어느 형태로든지 19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영국의 복음주의(British Evangelicalism)와 관련을 맺고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국가교회와 관계없는 자발적인 선교단체, 즉 복음주의 운동과 비국교도 운동 등의 모습이 그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부터 시작된 소위 ‘제2차 대각성운동(1789~1825)’³⁾ 결과로서 다양한 형태의 선교단체들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지역별로, 다음으로는 주 단위로 그리고 점차 전국단위의 연합 형태의 선교

2) Lefferts A. Loetscher,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金南植 역, 『世界長老教會史』(성광문화사, 1980), 95쪽. 당대 미국 사회의 사회적 이슈는 “노예제도, 압제, 전쟁, 안식일 논쟁, 여권운동” 등이었다고 로에취는 술회한다. 이 같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미국 교단은 보수적 견해와 급진적 견해를 둘러싼 교파간의 분열 양상을 보였고, 한편으로는 분열을 지양하는 통합의 의지도 개진되었다.

3) 18세기 중엽 매사추세츠와 뉴욕, 그리고 뉴저지 등 미국의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field) 등의 설교가들로부터 시작된 영적각성운동을 ‘제1차 대각성운동’이라고 명명한다면, 이후 18세기말과 19세기 초에 걸쳐 무디(D.L. Moody)를 중심으로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을 ‘제2차 대각성운동’이라 명명할 수 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은 미국이 전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도덕적, 인류애적, 교육적 가치들의 고양을 촉구하였고, 이 같은 운동의 결과 데이비드 브레이너와 같은 선교사가 배출되었다. 앞의 책, 78~79쪽 참조.

부들이 탄생된다. 이들은 국내외의 선교를 강조하면서 젊은 헌신자들을 독려하였는데, 종종 특정한 교파의 배경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1810년에는 회중교회 소속의 ‘외국 선교를 위한 미국 선교국’이, 1812년에는 ‘외국 선교를 위한 미국 침례교 선교 총회’가 생겼다. 그리고 1817년에는 장로교가, 1818년에는 감리교가, 1820년에는 성공회가 각각 선교 단체들을 조직한다.⁴⁾

한편, 이상의 교파 중심의 선교단체들과는 별도로 미국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유럽인들의 대량 이민행렬 등으로 인한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초교파 형태의 선교에 눈뜨게 하는 자극이 되었다. 19세기 중엽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YMCA와 YWCA운동, 초교파적 주일학교운동, 그리고 대각성운동을 잇는 무디(D.L.Moody) 중심의 복음주의 부흥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디의 혈몬산 (매사추세츠 노스필드 근처) 성경공부 집회를 통해서 결성된 SVM(Student Voluntary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은 ‘이 시대 안에 전세계를 복음화하자(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선교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이후 이 운동은 세계로 확산되어 1892년에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Student Voluntary Missionary Union)화 되는 발전을 거듭한다. 아울러 이 운동이 모태가 되어 존 모트(John Mott), 올드햄(J. H. Oldham), 템플(William Temple), 쇠더블롬(N. Soederblom)과 같은 복음주의적 초교파운동의 지도자들이 탄생된다.⁵⁾

2. 미국 각 교단 선교부의 한국 진출 경위

한국은 韓末의 불안한 政情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차례의 天主教死禍들을 경험하였고, 개신교 선교사로 이미 런던 회중교회 소속의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목사는 대동강변에서 1866년 9월 2일 제너럴셔먼호의 좌초와 함께 순교의 길을 걸었다. 이 같은 연유로, 대각성운동의 결과 신앙적이고 진취적인 젊은이들이 미국의 각 교단 선교부에 선교사로 지원하는 와중에서도 한국은 종종 그 관심의 대상에서 빗나가곤 하였다. 하지만 북감리교회의 매클레이가 일본으로 귀임한 후, 또한 1884년 9월 20일 미북장로교의 알렌(Horace N. Allen)이 미국공사관

4) 李亨基, 『福音主義와 에큐메니칼 運動의 세 흐름에 나타난 神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5쪽

5) 앞의 책, 26쪽

의 공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은둔의 땅’ 대한제국은 차츰 미국의 敎界에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북장로교회의 언더우드와 북감리교회의 아펜셀러가 한국으로의 선교를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을 거쳐 1884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도착한다 이들은 당시 순교의 위협을 부활의 승리로 이겨나가기를 비는 소감을 피력한다. “우리는 부활 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 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엮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먼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분명 순교자들의 선교지로 알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다는 것은 순교에로의 파송과 같았다는 사실이다(One of the most inspiring facts of the history of the Church is the fact that Korea was clearly known as the mission field of the martyrs, and that to sent to Korea was like being assigned to martyrdom).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어 불안할 때였음을 감안할 때 당시의 정황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장로교계통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 속속 입국하게 된다. 美北長老會 系統의 선교사로는 1885년에 의사인 헤론(John W. Heron)이, 1887년에는 역시 의사였던 하워드(Miss Meta Howard), 그리고 1890년에는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t)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여타 장로교 계통의 선교사들도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바, 1889년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헨리 데이비스(Henry Davis)와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스(Mary Davis) 그리고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테이트(L.B. Tate)와 그의 누이 메리스 테이트(Marris S. Tate)가, 1893년 12월에는 맥켄지(William J. Makenzie)목사가 독립 선교사로 來韓하여 활동하다가 1895년 사망하자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그리어슨(Robert G. Grierson)부부 등이 선교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⁶⁾ 이들의 입국으로 선교부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1893년 ‘長老會 政治를 채용하는 宣敎公議會(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하였던 바, 이 기구는 이후 일반적으로 ‘宣敎師公議會’라 불리게 되었고 이를

6) Lefferts A. Loetscher, 상계서, 209쪽

통해 宣敎區域을 조정하여 南長老敎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北長老敎는 평안북도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서북지역을, 캐나다장로교회는 함경도를,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낙동강 이남 지방을 담당하기로 하는 協議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⁷⁾

초기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주된 사역들은 직접 설교(preaching) 등에 의한 복음 전파 방식과 함께 의료선교, 교육사업 등이었다. 알렌 등은 주로 정부의 고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선교를 실시하였지만, 스크랜튼 등은 민중계층을 치료하는 병원을 개설한다. 또한 성경번역과 문서선교등도 빼놓을 수 없었던 중요한 선교사역들이었다. 간혹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 의견차이 등이 있긴 했지만 이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세기가 채 끝나기 전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10만을 헤아리는 숫자로 증가하게 된다.

3. 한국 진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한국에 들어와 체제하면서 선교 사업에 종사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美國 北長老會 외지선교회 소속의 의사 미국인 알렌(Horace Newton Allen)이었다.⁸⁾ 알렌은 1884년 9월 14일 상하이를 떠나 9월 20일 한국 제물포에 도착하였다.⁹⁾ 그의 入國은 양의사가 긴급히 요구되는 韓國 駐在 外交官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는 곧 미국 영사관의 公醫로 일하게 되었고 뒤이어 영국, 중국, 일본 영사관등의 公醫도 겸하게 되었다. 때마침 1884년 12월 4일 朝廷의 開花派와 守舊派가 충돌했던 甲申政變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민비의 조카였던 수구파의 민영익이 자객에 의해 亂刺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바, 알렌은 민영익을 정성껏 치료하여 그가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왕실의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국왕의 신임을 얻어 최초의 서양식 병원 ‘濟衆院’을 설립 이를 통한 의료선교에 힘쓰게 되

7) 앞의 책, 210쪽.

8) 이 점을 논하고자 할 때 물론 우리는 1884년이라는 해는 한국에 이미 천주교를 통해 기독교(그리스도교)가 소개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에 이미 319개의 기독교 마을과 1만7천5백77명의 기독교(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Martha Huntley *A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車鍾淳 역 『韓國改新敎初期의 宣敎와 敎會成長』 (목양사, 1985), 31쪽 참조.

9) 앞의 책, 29쪽.

었다. 알렌은 그 후 미국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금 한국에 입국하여 1897년에는 미국 공사관의 代理公使 및 總領事로, 그 후 1901년에는 特命全權大使로 봉직하게 되었다. 이같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던 알렌의 행적에 대하여 물론 그 후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곧 이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장로회 파송 의료 선교사 헤론등과의 不和說을 통해 알렌의 선교사로서의 인격에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의 의사 및 외교관 신분이 순수한 선교사로서의 직분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 외지 선교부의 정식 파송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한 최초의 선교사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알렌의 의료 및 외교활동을 통한 間接 宣敎외는 달리 다음해 1885년 부활절에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장로교회의 언더우드와 감리교회의 아펜셀러는 각처를 직접 다니면서 傳道에 힘을 기울인 명실 공히 최초의 本然의 선교사로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언더우드(H. G. Underwood)는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15세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이민하였으며 뉴욕대학과 뉴브런스워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 선교사로 파송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884년 7월 28일에 그를 한국으로 파송할 선교사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16일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다음해 1월 초 일본에 도착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약 2개월간 滯留하면서 당시 일본에 머무르던 한국인 신자 이수정을 만나 그를 통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고 또한 그가 번역했던 신약성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하였다.¹⁰⁾ 언더우드는 주로 개혁교회(Reformed) 전통 안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다. 개혁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을 기본으로 신앙의 행태를 영위한다. 칼빈주의 전통은 인간의 자유의지적 국면보다는 神의 주권을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신학의 전통 위에서 있다. 따라서 예정과 섭리, 그리고 神의 절대적 선택 등에 일차적 의미를 부여한다. 개인의 신앙적 결단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신적 의지로 인한 ‘신의 영광 (Soli Deo Gloria)’을 도모하는 일에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일차적

10) 앞의 책, 39쪽.

으로 성경중심의 개인구원에 힘썼고 또한 교회설립(새문안교회 등)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와 함께 연희전문 등의 학교와 세브란스 등의 병원 설립에도 앞장섰다.

아펜젤러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손머튼이란 조그만 도시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래 그의 선조는 독일계 스위스 사람으로서 ‘아펜젤’이란 두메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성을 삼았다고 한다. 어릴 때에는 독일계 루터 교회에 속해 있었다. 1882년에 독일계 루터교회 교육기관인 플랭클린 마살대학을 졸업하였다. 이 대학에 재학 중에 그는 로우캐스터 제일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기게 된다. 이후 드류대학 신학부에서 공부를 마치고 엘라돏지와 결혼한 직후 한국선교의 임명을 받기에 이르른다. 아펜젤러의 전기작가 존스는 그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펜젤러는 아주 예절 바른 사나이였다. 예절 바른 행동이란 본래 희생정신의 소산이다. 그의 생애는 남에게 대한 친절하고 이해성 많은 정신으로 일관했다. 자기의 동료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여성들에게 겸손하였다.”고 술회한다. 웨슬레의 또 다른 전기작가 데이비스에 따르면 아펜젤러의 생애와 신학은 웨슬레 신학을 따라 초기 사회복음 운동의 지도자였던 스트롱(Josiah Strong, 1847-1916) 등에게 깊이 영향 받은 것으로 규명하고 있다. 스트롱은 자신의 저서에서 ‘무절제’야말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미국의 운명(the Divine Destiny of America)을 가로막는 철대 해악 가운데 하나임을 역설하면서 금주·절제 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아펜젤러의 사회개혁으로서 절제운동 등은 이에서 유래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웨슬레의 신학과 그 전통을 잇는 사회개혁적 운동의 맥락 속에서 아펜젤러가 한국에서 정동감리교회의 설립뿐 아니라 배재학당 등의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볼 수 있겠다.

III. 한국 진출 선교사들의 문명관

1. 출신배경으로 본 선교사들의 의식 양태

한국에 파송되어 활동했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로 1800~1865년까지 미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소위 ‘복음주의

(Evangelical America) 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20세기의 미국사회를 '프로테스탄트 아메리카(Protestant America)'라고 지칭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복음주의 운동'은 주로 성서를 神言으로 믿는 성서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체험적, 실존적 신앙, 그리고 그 복음을 세계를 향해 증언하는 행동하는 신앙의 골격을 그 특징으로 한다.¹¹⁾ 미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를 역임한 브라운(Arthur J. Brown, 1856~1963)은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신앙양태를 분석하면서 상기의 소위 '복음주의적 경건'에 토대한 '개인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 성향을 띤 '청교도주의자'들이었다고 술회한다.¹²⁾ 브라운은 이들 선교사들의 기본 의식이 지나치게 소위 '개인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이를 통해서 훈련 받은 최초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타계적, 비역사적, 개인적 영성의 구현에 머물게 되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논문들에서는 브라운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점들이 포함된다. 이승준은 역사적으로 성수주일 금주·절제, 노예제 철폐운동 등의 강력한 '사회성'을 지닌 운동들이 실제로는 남북전쟁 이전의 미복음주의 사회(Antebellum Evangelical America)가 주도해온 대표적인 사회개혁, 공공의 도덕개혁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면서 상기의 선교사들이 단지 '내재적, 개인적 구원'에 몰입된 "청교도주의자"에 불과하다는 브라운의 비판에 문제를 제기한다.¹³⁾

브라운의 견해에 대한 수정적 시각이 최근의 학문적 경향에 나타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9세기 말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일차적으로 적극적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구원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경건주의 전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당시 워싱턴 총회의 부회장이었던 감리교 감독 앤드류스(Edward G. Andrews)는 다음과 같은 설교를 남기고 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회개, 예수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개인적 병화를 의미합니다. 한 민족의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각 개별적 개체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

11) Robert K. Johnston, "American Evangelicalism: an Extended Family," *The Variety of American Evangelicalism*, eds. Donald W. Dayton and Robert K. Johnston, 1991, pp. 261~262.

12) Arthur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1919, p. 540.

13) 이승준, 「한국개신교의 정체성 논의와 Evangelical America」, 『기독교 사상』 (1998, 8-9월호).

국을 정복한 기독교의 놀라운 위력도 결국 루디아와 간수 그리고 이후 수많은 각 개인들의 연속적인 회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 입니다.”¹⁴⁾ 따라서 아펜젤러의 “기독교의 힘은 죄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각 개별적 성도들이 지닌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¹⁵⁾라는 신앙적 언술도 상기의 전체적인 소위 ‘복음주의 운동’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이 학교와 병원, 그리고 고아원등의 설립, 즉 소위 ‘사회변혁적 의자’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다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먼저, ‘복음주의적 영성’이 한국에서 적용될 때 다소간의 변형 즉 ‘문명적 접근’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2. 문명관과 사회적 가치관

‘금세기 안에 기독교를 전 세계에 라는 열정으로 무장된 19 세기 후반기의 미기독교의 분위기는 한편 당시 미국과 미국적 가치관의 팽창이라는, 즉 다분히 제국주의적 이념과 나뉘대로 교분을 맺고 있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자 했던 결정은 비단 당시 미 政界만의 결정은 아니었다. 비록 몇몇 소수의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스페인 정부가 쿠바의 혁명을 지나치리만큼 잔혹하게 다루었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인해 스페인과의 짧았지만 강도 높은 갈등관계를 부추기는 일에 동의하고 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페인과의 전쟁의 승리로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군도들을 획득한 사실에 대하여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미국에 대한 축복’이라는 이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⁶⁾

역사 안에서 미국, 특히 기독교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역할을 깊이 확산하는 분위기는 여타 다른 민족들도 미국적 문명관과 가치관에 종속됨으로 그 결과로 자

14) Edward G. Andrews. “Address of Welcome,” in *National Perils and Opportunities, The Discussion of the General Christian Conference held in Washington, D.C., 1887*, p. 17.

15) Daniel M. Davies, *The Life and Thought of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 Missionary to Korea*, 1988, p. 378.

16) Robert T. Handy, *A History of the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77, p. 279.

신들이 누리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의식으로 나아갔다. ‘미 복음주의 연맹(American Evangelical Alliance)’의 총무로 있었던 조시아 스트롱(Josiah Strong)은 백인 기독교도들의 집회에서 다음과 같은 확신에 찬 목소리의 설교를 행한다. “우리는 이제 막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믿습니다. 이 다가오는 세기동안 전 세계는 보다 더욱 분명하게 앵글로 색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올 것입니다. 앵글로 색슨 문명은 인류의 완성을 위하여 제기되어왔던 그 어느 가치관보다 더욱 선진적이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점차 가까이 왔음을 체감하는 바입니다.”¹⁷⁾

상기와 같이 인종적 우월감에 근거하는 미국과 미국(앵글로 색슨) 적 기독교인의 행태는 단지 진보주의적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복음주의 계열의 한 집회에서 1890년에 행하여진 다음의 연설은 그 내용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를 다시금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각양의 기독교 국가들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순수성에 대한 비율이 향후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세계는 다음의 위대한 세 나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입니다. 오랜 약속은 이제 막 성취되고 있는 바, 참 신을 섬기는 자가 이제 세계를 소유할 것입니다.”¹⁸⁾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의 의식 속에는 상기의 문명관이 직,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개화기 당시 그 누구보다도 더욱 미국적 언어와 사고 양태에 개방적이었던 윤치호의 다음과 같은 경험은 선교사들의 소위 ‘인종주의적 편견’을 잘 드러내 준다. “오늘 아침에 레르(Loehr)목사가 중국 학생 신도들에게 교회에서 예수가 악마를 이겨서 천당을 쟁취하셨듯이 일본이 중국을 이겨 대만을 얻었다고 설교하였다.. 중국인들에게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이 왜 예수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불평한다. 그러나 선교사 자신들이 그들의 주택의 접견실에서 원주민들을 절대 대접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원주민들도 마음을 열리가 없다.”¹⁹⁾

17) Robert T. Handy, 상계서 p. 280.

18) Robert. T. Handy, 상계서, p. 278.

3. 문명의식의 신학적 배경

<죽음의 먼지(The Dust of Death)>에서 기니스(Os Guinness)는 복음의 내용을 가장 초월적(transcendental or otherworldly)이지만 실에 있어서 혁명적(revolutionary or thisworldly)이라는 주장을 한다. 오히려 “복음은 급진주의적이라 함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복음은 인간 심령의 근본 뿌리를 새로이 개조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라고 이원설은 기독교적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의 구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일갈한다.²⁰⁾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맞물려 독특한 신앙행태와 실천적 윤리의 근간이 되어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희망은 ‘역사 안에서’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선적(Lincal) 역사관과 세계관은 기독교인들의 행태에 독특한 구심점으로 작용되어 왔다.

19세기 ‘제 2차 대각성운동’에서 촉발된 ‘금세기(19세기) 안에 이 세계를 복음화(福音化)’하겠다는 모토는 다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있다. 성경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소위 ‘前천년설(Pre-millenium)’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신앙행태가 당시 선교를 지망하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과 세계관의 틀을 형성하였다. ‘전천년설’과 그 신앙적 배경으로 인한 실천적 행태는 독특한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유래한다. 역사를 순환으로 생각했던 고대 그리스인들과 달리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역사는 창조주의 섭리 속에 시작과 끝이 있는 즉 알파와 오메가의 시점이 있는 단선적, 직선적 역사관을 근간으로 한다. 그리스도는 (직선적) 역사의 종말에 역사의 완성자로서 다시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 종말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로 나누어질 수 있는 바,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어거스틴 등이 주장하는 학설이며, 후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동안의 창조주의 통치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는 학설이며,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역사에

19) 박노자, 허동연, 『우리 역사 최전선』 (푸른역사, 2003), 37~38쪽에서 재인용.

20)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혜선출판사, 1992), 230쪽

개입한 후, 이어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학설이었다. 이제 전천년설의 종말관으로 무장한 신자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곧 임할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에 기대어, 그 임박한 종말을 고대하는 선각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정지작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루어야한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준다.

종말적 역사의식의 또 다른 국면은 지극히 반문명적 태도로 나타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과학과 이성의 발달이 가져오는 나름대로의 진보는 결정적으로는 그 한계가 너무도 분명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신의 전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비교하면 지극히 하찮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고의 패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유에 의하면 역사의 완성은 19세기 낭만주의 혹은 진보사관에 물들어있는 이성주의적, 세속주의자들의 신념과는 달리, 전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신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역사 내에서의 점진적 진보를 꿈꾸는 문명주의자들과 달리 천년왕국주의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급진적, 돌발적, 그리고 타의(신의 의지)적 역사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종종 현세보다는 내세, 역사 내적 참여 보다는 역사 초월적 비약의 세계관을 가진다.

IV. 한국 진출 선교사들의 대한(對韓) 인식

1. 선교의 처녀림, 한국

우선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지 한국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일차적인 관점은 한국을 근대문명의 이기주의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은 선교의 처녀림으로서 인식하는 방식이었다. 기독교 이전의 한국사회는 무속이나 민간신앙 유교와 불교 등의 기존 종교들의 혼재 양식을 띠면서 존재하였다. 기존의 종교들이 당시 조선인들의 심성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상황에 대한 진단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중국의 개혁가 량치차오의 영향을 받았던 당대의 개혁론자들, 특히 윤치호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 유교 윤리에 깊이 빠져 있던 당대 사회는 “(유교중심적) 관

계(官界)는 특정 가문과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려 더 이상 어떤 개혁 정신도 존재하지 않았던 수구 세력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였고, 위정척사운동의 거두 최익현(崔益鉉, 1833~1960)과 동도서기론적 개혁 유림이었던 이 기(李沂, 1848~1909)에게 있어서조차 조선후기의 상황은 “세도가들이 환로(宦路)를 독점하는” 암울한 것이었다.²¹⁾

조선사회의 오랜 배불승유정책으로 피폐된 불교 역시 당시 민중들의 심성에 깊은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세평 또한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한국에서 불교는 너무 신비주의에 흘러 한국인의 정신에서 소외되었으며, 반면에 유교는 신비주의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를 빼놓았기 때문에 종교적 갈망에 손 뻗는 한국인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민경배는 이점에 대하여 블랜드(J.O.P Blend)의 다음과 같은 관점을 소개한다. “한국인은 찬란한 이론이나 엄격한 현실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넓은 심연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한다.”²²⁾ 이같은 상황에서 게일(James S. Gale)은 “이제야말로 복음을 한국 백성들에게 전할 특별한 시간이라고 본다. 이들 역사 속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전통과 생의 파괴에서 비롯된 공백을 메울 것이 아직은 무엇 하나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884년의 우정국사건을 계기로 해서 망명 생활에서 돌아온 뒤, 일본에 수신사로 가 있던 박영효는 1885년 3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 스크랜틴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朝鮮)에서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교육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래 종교는 지금 기운이 진하였습니다. 이 백성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환히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과 사업인들의 일군(一羈)은 우리나라 어느 모퉁이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합헌적인 개혁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는 교육과 기독교화(基督教化)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²⁴⁾

21) 허동현, 박노자, 앞의 책, 14쪽.

22)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118쪽에서 재인용.

23) 민경배, 앞의 책, 115쪽에서 재인용.

24) 민경배, 앞의 책, 119쪽에서 재인용.

한국의 상황이 모든 면에서 백지상태와 같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고, 특히 상기 박영효의 입장에서와 같이 ‘기독교=근대화’라는 시각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기에, 초기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선교전략으로서 그들에게 익숙한 ‘복음주의적’ 개인주의 영성을 유지하면서도 문명의 이식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초기 선교사들에 의한 한국교회의 (성공적인) 성장의 원인을 찾고 있는 교회사가 라토렛(K. S. Latourette)은 “한국이 이 기간동안에 경험한 온갖 비운 때문에 받은 정서적 충격이 교회의 급증과 그 확대를 기록하게 된 것”²⁵⁾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 라토렛은 “한국 재래 종교의 진공성 기독교가 서구화의 운동에서 차지해야 할 지도에 대한 갈망”²⁶⁾ 등을 당시 한국사회에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2.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 한국

언더우드 는 한국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심경을 담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 한편을 남기고 있다. “...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곳 /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 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하고 화부터 냅니다..” 한 벽안의 이국인에게 조선인은 인습과 가난의 깊은 어두움에 잠겨 있는 은둔의 나라였다. 그것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 조선의 형국은 이국인의 눈에는 참담함과 피폐함, 그리고 고집스러움으로 비쳐지는, 암담한 형편이었다.

암담한 현실에 대한 선교사들의 처방은 개인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서 헌트리는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언더우드와 알렌의 선교 방식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분석한다. “언더우드는 알렌과 같이 소

25) K. S. Latourette, *Christianity in a Revolutionary Age*, Vol. III, London, 1961, p. 448.

26) 민경배, 앞의 책, 227~228쪽 참조

위 ‘文明’의 고상한 영향력을 그렇게 높게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선교사의 주된 목적이 ‘福音宣布’에 있으나, 한편으로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병든 자들을 처참한 곤경에서 구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선교를 펼쳐나갔다. 무엇보다도 언더우드는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과 한국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였다.”²⁷⁾ 알렌의 제중원 중심의 사회 봉사, 그리고 미국 공사의 지위를 이용한 고관세력과의 밀착과 달리 언더우드의 서민중심의 전도 열정을 마서 헌트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긍정적인 평가의 대상이었던 일부 선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소위 ‘양대인(洋大人)’으로 인식되어지는 대상으로 비쳐졌다는 사실은 주목받을 만하다. “선교사들과 왕실과의 유착된 관계로 선교사들에게는 유리한 여러 가지 특권들이 부여되었다. 선교사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치외법권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 정부의 호조(護照, 여행증명서)를 얻어 각 지방을 여행하면서 선교 활동과 의료활동을 하는 한편 상행위와 각종 이권에도 개입하였다. 알렌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이권을 미국인 사업가들에게 넘겨주고 뇌물을 받았으며,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도 상행위를 하였다.”²⁸⁾ 고 이만열은 지적한다.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적 양대인으로서의 행태에 대하여 윤치호는 자신의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일기형태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1899년 언더우드(Underwood) 박사과 그 부인이 (내가 지방관으로 있었던) 원산으로 잠깐 들렀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 부인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들이 일주일 후에 원산을 떠날 때 우리 집을 지나가면서도 우리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자신들끼리 예의를 정확하게 지키는데도 우리에게도 자신들에게 예의를 지키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들이기에, 그러한 행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우리에게 인류 평등의 원칙이 명백하게 적혀있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처럼 그 원칙을 자신들이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면서도 그들과 되도록 사교하지 않으려고 한다.”²⁹⁾ 한편으로 순수한 복음적 열정으로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이면에, 또 다른

27) Martha Huntley, 차중순 역 앞의 책 73 쪽

28)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185~186쪽.

29) 윤치호의 1903년 1월 15일자 일기, 박노자 허동현 앞의 책 38 쪽에서 재인용

한편 뿌리 깊은 문명과 인종적 우월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양면적 행태를 잘 드러다 볼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선교사들의 이중적 의식 행태는 소위 ‘사회참여’에 대한 행태에서도 잘 보여진다. 학교와 병원 등의 건립으로 일면 조선인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했던 일면과 달리, 소위 “사회참여를 배제한 순수한 복음운동”에 대한 기치가 그것이다. 이 같은 모토는 특히 3.1운동 전후에 그 면모가 두드러진다. 3.1 운동 이후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양태를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순수한 복음주의적 신앙운동이고, 둘째가 현실적 계몽주의 신앙운동이다. 전자는 김익득, 길선주, 이용도 등 주로 부흥운동가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교회내의 민중성향을 지닌 교인들이 주체를 이루었다. 3.1 운동 직후 패배주의적 경향은 교회의 탈역사적, 탈사회적 초월주의를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의 이면에는 선교사들이 ‘정치와 정교의 분라’라는 이념으로 당시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행태에서 그 행동양식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미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였던 브라운은 “(주로 청교도적 패러다임으로 무장된)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타계주의적 신학으로 인해 이후 한국교회가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한국개신교의 또 다른 본질적인 특성을 형성하였다”³⁰⁾고 비판한다.

또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나친 고학력 위주의 교회 행태에 대한 경계 원칙 또한 한국 교회의 향후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교사들은 한국의 교회가 서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으로, 결신자들 중에서 그 자질이 엇보이는 자들을 따로 택하여 교회의 지도력을 감당할 목회자로 양성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교육만을 전제하고 그 이상 (박사 등의 학위)의 교육에는

30) Brown, 상계서, pp. 541~542. 물론, 지나친 탈역사적 행태를 경계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일제의 한국 지배라는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현실적 시도로서 계몽주의의 신앙양태가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3.1 운동의 실패 원인을 민족의 독립역량 부족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항일투쟁과 민족 계몽운동을 통한 독립역량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들을 주창하였다. 1920~30년대 기독교에서 농촌계몽운동, 문맹퇴치운동, 절제운동, 야학운동, 문서운동, 여성계몽화 운동은 일제 말기까지 독립운동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 바, 대한독립 애국단의 결성(1919.5), 대한민국 청년애국단 등을 조직하였던 바 이들은 주로 기독교인이었던 것이다.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주의 사조와 현대 문화 속에 들어나는 세속주의 경향에 대해 호전적으로 저항하는’ 의미의 근본주의적 성향으로 무장된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고등교육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입장은 결국 1930 년대에 들어서 한국 교회의 교단 분열의 양상으로 표출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교단 분열의 양상은 먼저 장로교 안에서 보수, 진보간의 신학적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각 교파간에서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의 갈등이 표출되고 선교사 배척 운동 등이 격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선교사 배척운동은 3. 1 운동 직후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일본의 통치 전략에 일부 가담하여 교회의 비정치화를 강조한 선교사들에 대하여 강하게 표출되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조성되었던 1927년 장로교 선교사 로즈는 ‘풀어야 할 선교 과제들’이란 글을 쓰면서 한국 교회와 선교사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글을 쓰고 있다. “선교사들이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곳 사람들이 원하는가, 아니면 때때로 비난하는 바에 따라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곳에 와 있다.”³¹⁾ 로즈의 선교사에 대한 옹호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소위 ‘한국교회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서서히 선교사들이 배척을 받게 되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던지를 가늠케 한다.

3. 매혹의 열정과 경건한 엄숙주의

한인들에 대한 초기 선교사들의 인식의 또 다른 한 단면은, 비록 현재적 시점에서 암담함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미래적 가능성에 대하여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이다. 이 점은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발을 들여 놓기 이전 그들이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손에 넣는 과정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인상이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기 전에 천주교의 전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중국, 일본 등지에 정부의 사신으로 파송받은 관리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고 또한 이들을 통해 이미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는 등(1883년에 개화파의 통신사로 일

31) 한국기독교사연구회편, 『한국 개신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91), 173쪽에서 재인용.

본에 갔던 이수정이 1883년 4월에 일본 기독교신자에 의해 감화받고 愛洗, 1884년 요코하마에서 한문에 한글 토씨를 달아서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출판하고 다음에 마가복음을 한글-한문판으로 출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일본에 잠시 머물렀을 때는 이미 한글 성경번역이 시작된 뒤였다) 한국의 개신교회의 시작은 이미 한국인들의 손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언더우드는 선교 초기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처음 출발에서부터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는 달리 기독교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고, 그 결과로 복음의 전파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선교활동을 위해 싸우고, 감독하며, 지도함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체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선교활동의 초기 거의 출발부터 하나님은 섭리로서 일반적으로 독특하다고 말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세계의 여러 곳의 선교사들이 실제로 택하고 있었던 방식이었다. 단지 독특한 점이 있었다면, 이 나라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이 이의 없이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데 있다.”³²⁾ 여기에서 언더우드가 언급한 독특한 선교방법은 다름이 아닌 소위 네비우스 선교정책이었다. 한국의 초기 개신교 宣敎史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정책을 이루고 있었던 네비우스선교정책의 내용은, 네비우스 자신이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정리한 선교지에서의 선교 착수, 새 신자 관리, 신앙공동체 관리, 교인 훈련과 교육, 사경회, 신조와 교리, 교회규칙, 교회조직, 타교파와의 관계, 학교와 의료사업, 타종교와의 관계, 교인들의 경제생활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교학적인 정리가 그 주요 내용이었다. 이들 중 주로 한국에서 절실히 필요한 4가지 정도의 선교방법을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형편에 거하게 하며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되어 자기 이웃들 속에 살면서 스스로 생업을 꾸려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친다. 2) 교회의 방법이나 조직을 토착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3) 교회 스스로가 가능한 한 인력과 재정을 공급하게 하여 이웃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하되 좀더 나은 자질이 발견된 사람은 별도로 둔다. 4) 본토인들로 자기네 교회당 건물을 마련하게 하되, 그 건물을 토착적인 것

32) H.G. 언더우드, 『한국개신교수용사』 3 쪽

이어야 하고 지역교회가 능히 꾸밀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지어야 한다.

한국인의 열정주의와 경건주의적 성향은 1907년의 소위 ‘대부흥운동’에도 잘 나타난다. 1907년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성경연구’ 등의 형태에서 시작된 대부흥은 18, 9세기 영국과 북미에서의 영적 대각성 때와 같은 부흥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한국 기독교사 연구회에서는 이 부흥운동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이 운동을 통해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과 정신이 한국기독교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점, 즉 성령임재에 대한 확신과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장래 있을 심판 및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한국교회가 체험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 한국인 신자와 선교사들간의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 즉 다소간 엇보였던 백인우월주의라든가, 또한 한국인들이 무조건적으로 서양인을 추종하는 것에 대한 자기발견이 가능했다는 점, 셋째: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와 교인의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³³⁾

열정과 경건성으로서의 한인들, 그리고 그 성향을 적절하게 이용했던 초기의 선교사들, 이들의 결합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自立 自治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러한 원칙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었다. “한인 신자들의 전도열은 한국교회와 같이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으리만치 고도화 되어 있었다”고 백낙준박사는 회고한다.³⁴⁾ “북구주 각국의 기독교회에는 4세기를 요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약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外地에 전도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서구의 교회에 대하여 무어는 지적하고 있다.³⁵⁾ 그러나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傳受와 傳導가 병행되었다는 점이다. “말로 알리고 마음으로 전하여 이 소식이 북으로는 멀리 만주 변경의 분지와 두만강 유역과 남으로는 해변 도서를 건너 다도해의 고도 벽촌에까지 전국 동서각지에 전하여지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개일은 회상한다.³⁶⁾ 때마침 터진 대부흥의 물결을 타고 한국교회는 제주도(1907), 러시아(1909), 일본(1909), 샷포로(1910)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33)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앞의 책, 275~276쪽.

34) 백낙준, 앞의 책, 442쪽.

35) E. C. Moore, *The Spread of Christianity in the Modern World*, p. 10.

36)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p. 191.

V. 結

구한말 미 개신교 선교사에 대한 이해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초기 개신교 출범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역할과 또한 보다 미시적으로는 그들이 근대문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선교대상지역인 한국,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동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이었다. 기독교의 전래에 있어서 대내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소위 서구화에 대한 갈망’을 분석하는 틀의 형성과제와 관련하여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관이 중요한 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성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근대문명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한편으로는 본국인 미국에서 세속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문명에 의해 이성의 원리에 따라 발전되고 있는 근대문명의 여러 얼굴들에 대하여 종교적 신념, 특히 청교도적 페러다임과 근본주의적, 종말적 신앙관과 배치되는 점에 어느 정도 저항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근대 세속사회의 등장과 문명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변화들을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그들과 거리를 두는 반근대주의(反近代主義)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선교의 사명을 띠고 서구 문명사회를 벗어나 소위 비문명사회로 간주되던 대한제국에 들어왔을 때 근대와 문명에 대해 미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입장을 선택하게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더불어 비문명적 생활을 청산하고 문명적인 가치와 생활방식을 선택하도록 한국인들을 계몽하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신앙과 문명에 대해 매우 모호하면서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근대 문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종교성을 보유한 사람들로 한국인을 묘사하다가, 또 다른 경우에는 문명적 가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미개성에 머무르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것은 당시 아시아지역에 진출하여 활동하던 군인들이나 상인들이 문명의 잣대만으로 비서구사회를 인식하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선교사들의 인식태도는 단순히 비서구=비문명 야만이라는 공식에 의해 제국주의적 침략이 정당화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화적 논리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친

시기 동안 서구인들의 사고 속에 자리잡은 오리엔탈리즘의 구조를 밝히고, 개항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근대문명에 대한 인식태도를 이해하는 데 또 다른 시각과 방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소속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근대문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념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하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한국개신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이 되며, 나아가 서구로부터 근대문명을 전달받은 비서구사회인 한국사회에서 문명과 종교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왔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하나의 통로를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광수, 『한국기독교성장사』 서울: 교문사, 1970.
- 민경배, 『한국기독교사』 서울: 연세대학출판부, 1993.
- 박노자·허동연, 『우리 역사 최전선』 서울 푸른역사 2003.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사, 1973.
- 연규홍, 「한국장로교회사에 나타난 칼빈신학사상 이해의 대립과 분열」, 기독교역사연구소 제147회 연구모임 발표문.
- 이만열, 『한국 기독교와 역사 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1.
- _____,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 이상규, 『칼빈주의와 한국교회』 풀빛 목회, 1983
- 이승준, 「한국개신교의 정체성 논의와 Evangelical America」 『기독교사상』 1998, 8-9 월
-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발전』 서울: 해선출판사 1992.
- 이형기,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 흐름에 나타난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9.
- 정성규, 『칼빈주의 사상대계』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 한국기독교사연구회편, 『한국 개신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한국교회백주년준비위원회사료분과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84.
-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편, 『한국선교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6.
- 한승홍, 『한국신학사상사(하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 홍일권 편저, 『세계 기독교 정보 330선』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87.
- Andrews, Edward G.. "Address of Welcome," in *National Perils and Opportunities, The Discussion of the General Christian Conference held in Washington, D.C., 1887*.
- Bercovitch, Sacvan, *The Puritan Origin of the American Self*, New Haven, 1975.
- Brown, Arthur,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1919.
- Davies, Daniel M., *The Life and Thought of Henry Gerhard Appenzeller(1858-1902), Missionary to Korea*, 1988.
- Handy, Robert T., *A History of the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77.
- Henthorn, William E., *A History of Korea*,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 Huntley, Martha, *A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차중순 역, 『한국개신교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목양사, 1985.
- Husto, L. Gonzales,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이형기·차중순 역, 『기독교사상사(III)』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 Latourette, K. S., *Christianity in a Revolutionary Age*, Vol. III, London: Eyre & Spottiswoode, 1961.
- Loetscher, Lefferts A.,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s*, 김남식 역, 『세계장로교회사』 서울: 성광문화사, 1980.
- Moore, E. C., *The Spread of Christianity in the Modern World*,
- Robert K. Johnston, "American Evangelicalism: an Extended Family," *The Variety of American Evangelicalism*, eds. Donald W. Dayton and Robert K. Johnston, 1991.
- Thomas, I. D. E., *Puritan Power*, 오태용 역, 『퓨리탄의 힘』 서울: 바른신앙, 1991.

● 투고일 : 2003. 3. 22

● 심사완료일 : 2004. 4. 26

● 주제어(keyword) : 미선교부(American Missions Headquarters), 대한인식(perspectives on Korea)